



X to Earn 무엇입니까? 상상이상의 발전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x-to-earn>

X to Earn 모델은 투자자에게 수동 소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인센티브 모델입니다.

X to Earn의 개념은 래빗홀(RabbitHole)의 운영 책임자인 벤 슈터(Ben Schecter)가 a16z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사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X는 식사, 운동, 수면, 쇼핑, 학습, 게임, 창작 등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arn은 이러한 특정 시나리오의 행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입니다. 웹3 시대에 사람들은 현실의 행동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X to Earn은 많은 웹3 응용 시나리오에 등장했으며 Play 2 Earn, Move 2 Earn, Learn 2 Earn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GameFi 산업에서 잘 알려진 예는 play 2 earn 모델입니다.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은 중앙집권화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전통게임의 무료게임(F2P, Free to Play) 모델에 대응합니다. 플레이어는 P2E 게임을 하며 게임 기본자산(NFT)이나 게임 토큰을 얻습니다. 이 자산들은 더 이상 게임 개발사에 속하지 않는 플레이어 자신의 소유입니다. 플레이어는 오픈마켓에서 게임 자산을 거래할 수 있으며 현금을 벌 수 있습니다.

P2E 모델은 다른 수익형 모델에 비해 현재 가장 큽니다. 대표적인 꼽힌 게임으로 [액시 인피니티\(Axie Infinity\)](#)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일일 활성 사용자는 100만 명을 넘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무브 투 언(Move to Earn)

말 그대로 걸으면서 돈을 버는 일종의 운동으로 임금과 결합한 새로운 수익 모델입니다.

M2E에서 사용자는 더 이상 게임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주관적 능동성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외출을 하고 싶을 때 M2E 앱을 열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의욕을 잃지 않습니다.

M2E는 P2E처럼 신체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M2E 모델을 앞서온 [스태프론\(STEPN\)](#)은 게임 요소와 실생활에서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결합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P2E 게임 엑시 인피니티부터 ‘걸으면서 돈을 버는’ M2E [스태프론](#)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행동 경제 모델에 기반을 둔 다양한 X-to-Earn 모델의 프로젝트는 가상 세계와 실제 생활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면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과 실제 모바일 기기가 결합된 이 M2E 모델은 저탄소, 친환경적인 삶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웹3](#) 세계 구축을 촉진합니다.

배워면 보상받는다 L2E(Learn to Earn)

Learn to Earn(L2E) 방식은 사용자가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온라인 과정을 수료하면 질의응답 퀴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모델입니다.

현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코인마켓캡 등 거래소가 L2E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도 쉽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들은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면서 더 많은 참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관련 지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참여자가 늘어날 수록 프로젝트의 인기는 높아지고 프로젝트의 발전도 촉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서치 투 언(Search to Earn)

S2E는 말 그대로 검색을 하면 토큰을 얻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구글, 네이버와 같은 대형 검색엔진의 주요 수익은 광고에서 나오고, 키워드 검색광고 단가를 높게 써낸 광고주의 사이트가 검색시 최상단에 표출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검색 엔진 '피리서치(Presearch)'는 기존 검색 엔진과 달리 사용자의 검색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에 대한 광고를 월할 경우 피리서치의 PRE토큰을 구매하고 맡기면 담보로 맡긴 토큰 양에 따라 광고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리서치를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리서치는 검색할 때 마다 PRE토큰을 검색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지급합니다.

Write to Earn

Write to Earn(W2E)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하여 2016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Publish0x와 Steemit과 같은 [Dapp](#)의 소셜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토큰 구입을 통해 플랫폼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편 다른 창작자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달거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해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토큰으로 받는 보상으로 이어지며 플랫폼은 기사의 좋아요 수를 해당하는 토큰 수로 바꿔 작성자에게 보상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독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작성자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X to Earn은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에 높은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사용자 저장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속감은 이용자를 더 이상 앱이나 서비스 사업자의 대립이 아닌 공동 설립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현재 주목할 점은 X2E의 장면에서 많은 종목이 코스의 열을 얻기 위해 급하게 진입하여 설계상의 허점과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